

백석大 캠퍼스에 떠오른 1,700개의 불꽃



장중헌 백석대 제7대 총장

백석대학교에는 어느 대학들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이력이 있다. 바로 두 개나 보유한 월드기네스 기록이다.

2012년 2월 하얀 설원 위에 3천6명의 재학생이 가장 큰 인간 핏방울로 기록을 세웠다. 또 올해 10월 25일 십자가 모양으로 선 1천70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스파클러(손에 드는 불꽃놀이)에 불을 붙여 두 번째 기록을 세웠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말씀이 빛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도전에서 재학생들의 티셔츠에는 성경 속 바울서신서가 새겨져 있었다.

이 행사에서 장중헌 백석대 총장은 "물질화, 분열화에 흔들리며 방황하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개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점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백석대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말씀을 입고, 빛으로 십자가를 나타냄으로써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파했다.

백석대학교가 월드기네스를 활용한 캠페인을 벌인 것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설립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유정윤 씨(21)는 "시대의 개혁가 마르틴 루터처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자그마한 변화라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의 불꽃, 개혁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 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사랑합니다. 장중헌 백석대학교 총장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교훈 아래 1976년부터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도 변화 그리고 개혁은 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대학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봉사, 희생을 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는 바로 사람다운 사람, 마음이 따뜻한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마음 따뜻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이라는 대학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 12개 학부마다 한 명씩 배정된 '학부 담임목사'는 학생들의 고민상담, 신앙상담과 함께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학부 행사들에 참여해 학생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는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진정한 신앙인으로 길러내겠습니다. 더불어 교수들이 먼저 나서 학생들의 안부를 챙기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거기 공감하는 것도 학생들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각박한 이 세상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백석대학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설립 취지를 잊지 않고 세계 수준의 명문 기독교 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❶

'해외취업 1위 전문대학' 백석문화대학교 이웃 사랑에도 앞장... '김장나눔 축제' 올해로 15회째



2017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

671명.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취업에 성공한 백석문화대학교 졸업생 숫자다.

'글로벌인재육성처'라는 해외취업 전담 부서까지 두고 있는 백석문화대학교는 2015년 기준으로 29개 해외 사업체에 78명의 취업자를 배출했다.

이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그해 발표한 해외취업 1위의 성과였다. 미국, 호주,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학생들이 취업한 국가는 매우 다양하다.

해마다 약 60명의 졸업생이 해외취업에 성공하는 백석문화대학교는 어떤 비결을 갖고 있을까?

학교 측은 그 첫째로 체계화된 어학교육을 꼽는다. 해외취업 프로그램은 처음 가동했을 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중에서도 해외에서 가장 필요한 외국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글로벌인재육성처 최상철 처장은 "언어 문제로 몇 개월밖에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학생을 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지만 열정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은 체계화된 직무교육은 물론 철저한 외국어교육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기업체와 학생 관리다. 학교 취업 담당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자리 영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이 학생들의 일자리로 연결됐다고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근무시간, 근로조건도 꼼꼼하게 따졌다. 타지에 있으면 찾아올 향수병을 생각해 학생들과의 꾸준한 연락 체계도 가동했다.

4년제 자매대학인 백석대학교와 함께 백석문화대학교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슬로건 중 하나는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이다.

대학 내 사회봉사센터는 이웃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캠퍼스를 공유하는 두 대학은 좋은 일에는 항상 함께 팔을 걷어붙인다.

해마다 10~11월이 되면 캠퍼스 한가운데에 커다란 천막이 펼쳐진다.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를 위한 것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김장나눔 대축제는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재학생, 교직원들은 앞마에 고무장갑, 마스크를 쓰고 새하얀 배추에 빨간 배춧속을 넣어 버무린다.

올해는 특별히 천안시복지재단, 천안 문치과병원 등 지역사회 기관들과 힘을 합쳐 5천kg 분량의 김치를 만들어 주변의 소외계층 500가구에 전달했다.

수년째 백석의 김장김치를 받아온 윤모 할머니는 "함께 사는 손녀도 백석대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김치를 참 좋아한다"며 "젊은이들의 정성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15년 동안 이 행사를 진행하며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지난해는 대학 건학 40주년을 맞아 후원의 집 40곳과 손잡고 행사를 열었다. 또 한 해는 천안-아산 지역 다문화가정의 며느리들을 초청해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장중헌 총장은 "나보다 어렵게 사는 이웃을 돕는 마음가짐을 갖길 바라며 시작한 행사가 15년이 됐다"며 "모든 동문들이 선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학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❷